

“후학들 더 넓고, 깊은 지식 쌓는 데 도움되길”

백영기 명예교수 1억원 쾌척 장학회 설립

“이 장학금이 수의대 후학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남은 인생에서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전북대 수의대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1950년 서울대 다음으로 설립된 전북대 수의학과 1회 졸업생이다 1998년까지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으니 모든 것이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다. 백영기 전북대 수의대 명예교수(85)다.

그가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일시납으로 쾌척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모든 뜻과 애정이 짙게 배어 있는 전북대 수의대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싶어서다.

이 기금으로 그는 수의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입 백영기 장학회’를 만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증액시켜 더욱 탄탄한 장학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수의대를 나와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정년을 하고 나서도 마음은 늘 모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여기서 보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백 교수가 이 기금 조성을 통해 원하는 것은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1차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 모험생을 키우고자 하는 대학의 인재양성 모토처럼 명사 초청이나 학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 등을 하면서 후학들이 더 넓은 지식을 갖길 바라는



백영기 전북대 수의대 명예교수가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일시납으로 쾌척했다.

마음이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5월 17일 오후 백 교수를 초청해 기탁식을 가졌다. 무한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도 전했다. 평소 그를 존경하는 후배들이인 양홍현 명예교수와 김제일 원장, 안동춘 교수, 김인식 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해 후학들을 위한 송고한

정신에 마음을 보냈다.

백 교수는 “늦게 전에 후학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매우 기쁨으로 자리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자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무주군은 18일 무주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6개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중독 예방 전문가 김인경 강사가 오후 2시부터 식중독의 이해와 예방, 개인위생, 식재료 위생관리, 세척·소독, 시설관리 등의 단계별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을 강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 사례들을 공유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식생활 안전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해 효과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따뜻한 밥상 대접으로 웃음꽃 ‘활짝’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나눔 활동이 18일 전주시 완산동 곤지중학교 옆 체린구장에서 진행됐다.

‘따뜻한 밥상’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가 지난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자동차부 전주공장위원회,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전주지역 어르신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전주교통방송 임직원과 영무예대음봉사단, 알뜰맘봉사단, 전주권대학생연합봉사단(청바지) 완산구해바라기 봉사단 등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완산동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400여 명이 편하게 따뜻하고 정성어린 점심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이날 따뜻한 밥상 나눔에는 뷰티플러스 봉사단과 이미용 봉사단 등 전문봉사팀이 참여 여 식사 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사춘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무주 위(Wee)센터 부모교육’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정수) 위(Wee)센터에서는 최근 가정의 달5월을 맞아 관내 초·중·고 자녀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5월달 사춘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부모 교육은 전북대 교육상담학 박사이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인 김진호 겸임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모바일게임 등 인터넷과 ‘혼돌’에 빠진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경찰서 지역경찰 권익과 소통 향상 현장 활력회의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8일 경찰서 소풍실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관리실무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치안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 경찰의 권익과 소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갈수록 증가되는 치안 수요와 복잡하고 난이해진 현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고령화, 업무 가중 등 어려움이 많은 지역 경찰관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해소함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철도체험학습 통해 청소년들 진로체험 기회 제공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진준)는 지난 18일 익산역에서 철도의 미래고객이자 지역 인재인 전주 공업고등학교 토목과 3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철도체험학습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내 고등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코레일 직무교육을 받고 익산정보운영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철도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군 동향면, 전북투어패스 체험

진안군 동향면(면장 전을기)은 최근 이틀에 걸쳐 전 직원 전북투어패스 체험을 마쳤다.

동향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은 진안 작은영화관에서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활용하여 영화 관람을 하고 전복의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체험을 마친 직원들은 “전북투어패스 카드로 편리한 관광을 할 수 있었다.”며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진안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010-965-4113	인후지사 248-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8-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96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